

“자동차 소비자 피해 정책적 문제점 해결 목표”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가족들이 미치도록 싫어하는 부업이 하나 있다.

자동차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이 그것이다. 민원이 생기면 가족은 내팽겨치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니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무보수로, 자비를 써가며 말이다. “부인께서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니 대답은 “당연히 싫어하죠. 와이프 몰래하고 있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정도였다.

제조사를 상대로하는 자동차 소비자 민원은 한해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레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결함이나 품질 문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3만개가 넘는 부품의 결합체인 ‘자동차’라는 벽 앞에, 제아무리 언론의 힘을 빌린다 해도 제조사를 상대로 한 승부는 승률이 1%를 넘지 못한다.

이는 통계가 증명한다. 레몬법이 시행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가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교환해준 것은 딱 3건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이정주 회장의 도움은 ‘천군만마’를



“

한해 소비자 민원 2000건 이상 발생

2003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설립

교환·환불 등 수백 건 해결 보람 느껴

”

얻은 것과 진배없다. 이 회장이 2003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설립 후 소비자들을 대신해 제조사와 싸워 해결한 민원만 수백 건에 달한다.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들이 정말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돼 저를 찾아옵니다”라며 “제조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거

절했던 것을 교환, 환불해주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했다.

간혹 도움을 받은 소비자들이 고마운 마음에 연맹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더러 있긴 하지만, 이보다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고 한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일에 이 회장이 매달리는 이유도 궁금했다.

그도 한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사와 싸워야 했던 과거가 이 고단한 일을 하는 계기가 됐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대자동차와 싸워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그때 든 생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제조사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돼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다반사가 됐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야 자동차 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한 소비자가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감사의 글이다. 그가 아직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다.

이 회장은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다. “이제 개별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들, 자동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보는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는 깊어지는 아내의 한숨에도 자동차에 대한 외교집을 껴들 생각이 없는 듯 했다.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사람들

저커버그 “인스타그램에 곧 NFT 도입”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인 대체불가토큰(NFT)을 인스타그램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저커버그 CEO가 이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영화·미디어·음악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서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곧 NFT를 만들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가까운 시기에 NFT를 인스타그램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정확히 그게 어떤 게 될지 오늘 발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지 포춘(Fortune)은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서 쓰일 아바타(분신)의 의상도 NFT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 메타가 NFT 장터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이를 창작하고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저커버그는 지난해 자신이 구상 중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가 디지털 상품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FT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



여한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일반 동영상, 이미지 파일과 달리 복제가 불가능해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NFT는 최근 투자 대상으로 급속히 인기를 끌면서 각종 상품이 속속 나오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대통령·당선인 단독회동 무산, 청와대 책임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무산됐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선거 일주일 만에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노출하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양측은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정부 교체 과정에서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동은 배석자 없이 둘만의 만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총장이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에 뛰어든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전화 통화에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하면서 ‘협치’와 ‘원만한 인수인계’가 기대됐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데 대

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커 신경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한국은행 총재 등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 ‘협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어 왔다. 김대중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 책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측근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외교와 경제 문제, 고비를 맞은 코로나 방역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두 달 동안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주장만 고집한다면 진영 갈등 해소는커녕 부추긴다는 비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통합과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예측 빚나간 오미크론 정점… 거리두기 완화 더 신중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6일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7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국의 37만 명 정점 예측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수치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을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소한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이 위세를 떨치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62만9275명으로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성인 4명 중 1명이 감염됐다는 얘기다. 또 당국이 독감 수준으로 치명률이 낮다고 하지만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8명 늘어난 1244명에 이르면서 거리 두기 완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계절 독감도 하루에 40만 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방역 당국이 시뮬레이션한 정점 도달

시점도 못 믿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 규모가 미국의 정점 129만 명, 프랑스의 50만 명보다는 낮지만, 인구수 비례로 환산하면 미국의 2배 이상, 프랑스보다는 약 30% 가까이 정점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섣불리 거리 두기 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심 중인 거리 두기 방안은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의 연장이나 해제, 6명으로 한정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확대나 패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실제로 한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유행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당분간 하루 확진자가 30만~40만 명 안팎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타당해 보인다. 어쨌든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정점이 성큼 다가온 만큼 불편을 좀 더 감수하더라도 완전히 지날 때까지 거리 두기 완화를 자제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아시아타임즈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

대표이사 발행인 조용하 편집국장 송남석 주필 강현직 인쇄인 이정자

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8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편 집 국 (02) 801-1800
광 고 국 (02) 801-1823

정치사회부 (02) 801-1861
산 업 부 (02) 801-1841
경 제 부 (02) 801-1842
건설부동산부 (02) 801-1843

생활경제부 (02) 801-1853
뉴미디어부 (02) 801-1867
편 집 부 (02) 801-1851
전 국 부 (02) 801-1862

윤 전 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능)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리임빌딩 8층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마지막 미발표 유작 마침내 출간!

우리는 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에리히 프롬의 살아 있음의 철학

에리히 프롬

정혜경 옮김 | 260쪽 | 값 15,800원

어떻게 사랑의 철학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랑의 기술》을 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회복을 위한 따뜻한 통찰.

소외된 인간에서 창의적 인간으로, 소비하는 인간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

수동적 인간에서 활동적 인간으로, 삶을 사랑할 자유에 대한 프롬 철학의 정수가 담길 수작.



에리히 프롬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추구한 실천적 학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을 남겼다.